



현

재 한국불교는 세계 20개국 150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있지만, 개인의 원력에 의존한 포교방식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보다 조직적인 포교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각 종단들은 최근 종단차원에서 해외포교 전략을 준비하며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제창하고 나섰다. 조계종의 경우 총무원장 스님이 2005년을 해외포교 사업 진흥의 해로 삼겠다는 원력을 천명할 정도다. 또한 불교계 NGO 역시 90년대 초반부터 다져온 사업전략을 실질적인 포교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크다. 이들 종단과 단체들의 해외포교 전략을 살펴본다.

준비된 안목으로 세계화 '레디 GO'

■ 조계종 국제과 신설로 정부·종단·사찰 연계 루트 마련

조계종은 올해 초 총무원 사회부 내에 국제과를 신설한 이후 포교원과 상호 협력해 해외 포교의 조직화·체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건립을 성공적으로 회향한데 이어, 해외의 한국사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국제과에 따르면 '해외포교의 거점'으로 강조됐던 '해외교구' 설립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적으로 본다면 150여개의 해외사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해외 교구의 설치 우선이지만, 현지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해도 연간 3억 원도 안되는 해외포교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계종측은 국내 교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기획하고 종단에서는 포교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몽골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대구 동화사, 중국 오대산과 교류의 물꼬를 튼 월정사 등 해외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사찰의 활동을 보조하고 정부와 연계해서 이를

발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제과는 현재 각 사찰별 국제 교류 현황을 파악·분석하며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이들의 교류가 단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LA 관음사 등 왕성한 포교활동을 펴고 있는 해외 사찰을 지역 포교의 거점 사찰로 응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려는 계획도 있다. 총무원에서는 해외 현지 포교에 앞서 요구되는 행정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포교원은 국제 포교사 양성 등 포교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교육원에서는 현지 해외포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스님들의 언어 및 교육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의 스님들을 소집·초청,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해외포교'를 특정 부서의 담당 업무가 아닌 종단 전체의 중점과제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인 지원 체계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과의 판단이다.

■ 해외포교 앞장서는 불교 NGO

JTS 산하 국제 기아·질병·문맹 퇴치 민간기구 JTS(Join Together Society)는 1994년 인도 최북단지역 동게스와의 개발 구호사업에 뛰어들어 '수자타 아카데미'를 건립한 이래 10년간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교육·의료 사업, 무료급식 및 식수개발에 매진해왔다.

올해 수자타 아카데미 건립 10주년을 맞이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필리핀으로 구호 사업을 확장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해당 지역사회 재건에 필요한 학교설립, 교량공사, 식량 구호 등의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는선우 캄보디아·미얀마 승단 교육지원금 후원사업(94년)으로 해외포교 원력을 세운 이후 한·몽 불교문화원 개원(96년) 등의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티벳불교 지원, 한몽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04년) 등을 실시하며 불교국가들 대상으로 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와 연계해 2002년 인도불교도품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석가족 마을에 법당과 학교 등을 마련해왔고 최근에는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자립·자립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올해 안에 불가촉천민 여성수행센터를 준공하는 등 내년까지 1단계 프로젝트를 회향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화운동을 아우르는 2단계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활동가들과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기타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95년 '자비의 종' 저금통 분양으로 후원계좌를 마련한 이후 르완다, 터키, 북한 등지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며 후원사업을 확장 중이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진각복지회 역시 네팔 내 직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지의 자립 프로그램을 넓혀갈 계획이다.

지구촌 공생회는 라오스내에 교육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강신재 기자

■ 천태종 현지인 활용한 한국체험 프로그램 '인연 맺기 활밭'

천태종은 2002년 4월 덴마크에 포교당을 건립해 유럽포교의 거점으로 삼은 이래 캐나다와 몽골, 파키스탄 등지에 포교당 개설을 추진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 포교당은 문을 연지 2년 만에 덴마크 현지인과 한국 태생 입양아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스님이 상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사범 신도회장의 태권도를 매개로 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그 비결이다.

또한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입양아 복지사업이 덴마크 내 한국인 입양아들의 실행활동을 이끌었고, 한글학교와 사물놀이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다

양화하며 포교에 박차를 가했다.

캐나다 토론토 포교당 역시 준광 스님(관문사 주지)의 지도 하에 법회를 꾸리고 있다. 또한 이를 거점으로 한국사찰을 비롯해 유치원과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한국불교타운 건립 계획도 구상 중에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몽골에 생필품을 지원한 데 이어 수도 울란바토르에 포교당 부지 2만 여평을 확보했으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교류도 추진 중이다.

천태종 교무부장 준광 스님은 "앞으로 배출될 금강대학교 졸업생들을 해외 포교사로 적극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거점 교육·문화 공감대 형성 주력

진각종은 국제불교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외에 6개포교당을 마련하고 국제 포교의 전문화·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92년 미국 LA에 심인당을 개원한 이래 99년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에 심인당을 추가로 개설하고 매주 2회에 걸쳐 정기법회와 불공을 봉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리랑카, 네팔 등 아시아 지역에도 90년대 말부터 포교소를 마련하고 포교활동에 뜻을 닦았다.

진각종의 조직적인 포교는 '찾아가는 포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워싱턴 심인당에서는 실제로 노인 아파트의 지역별 요일별 방문을 통해 개신교 일색의 주민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렸으며,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연등만들기·명상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의 문화

센터 등으로부터 불교문화 체험 강좌를 요청받기도 했다.

스리랑카, 네팔 등 개발이 요청되는 곳의 포교소에서는 진각복지회(JGO)의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네팔지부의 경우 무료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컴퓨터 강좌 등을 운영하며 현지인 포교에 적극 뛰어들었고, 그 결과 현지인 포교사의 집전 아래 법회를 진행할 정도가 됐다.

이외에도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릴 예비 포교사인 스리랑카 실라 스님과 네팔의 라빈 법사 등 현지인들을 위태대장 학생으로 초청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돕고 있다.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구동현 씨는 "국제불교연구소에서 해외 지부의 포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포교의 노하우를 상호지원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화엄학 연구원 통화불교 전강원 제2기생 모집

圓照 覺性 대강백계서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백양사, 은해사, 금산사에서 20여년간 강주를 역임하시고, 서울 부산에서 재가불자에게 불교, 유교, 도교 경전을 강의하셨으며, 동국여경원 번역위원과 증의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통화총서 13집(대도지지, 천부경, 중용지지, 유식론, 대승기신론, 능엄경정맥소현시, 화엄경론회석등등)을 발간하셨다. 큰스님께서 말년의 회향으로 역경, 포교, 도재양성 3대

— 아 래 —

- 수업연한 : 2년, 매주 3일간 수업 (화,수,목요일 오후 8시30분 ~ 10시 30분)
- 수업과목 : 불교학 및 동양학
- 수업장소 : 부산화엄사
- 지원자격 : 강원대학교졸업자, 대학교졸업자, 사서삼경졸업자, 이와 동등한 실력자로서 불교와 인연있는분
- 제출서류 : 승적사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각 1통씩
- 모집기간 : 2004년 10월 30일 14시까지
- 월 회 비 : 15만원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번지 화엄사 종무소
- 문의전화 : (051)324-0590, 011-573-0824, 010-3067-2578

화엄학 연구원 통화불교 전강원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저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교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 중국전통기공법·중국무술내가권
 -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 벽국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